



지상파DMB 방송 허가 신청

- 주파수 8번 A 블록 신청, 이달 중순쯤 허가 -

지난달 29일 YTN DMB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상파DMB 방송 사업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에 방송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상파DMB 방송 허가 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에 방송국 출범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YTN DMB가 신청한 지상파DMB 방송 주파수는 8번 채널의 A블록이다. KBS와 MBC, SBS 등 기존 방송사들은 시험 전파를 발사해 온 12번 채널을 그대로 신청했고, 신규 사업자인 한국 DMB는 8번 채널의 B블록을 신청했다.

이 같은 주파수 배정은 각 사업자가 지상파DMB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한 결과이다.

당초 기존 방송사들은 12번 채널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했고, YTN DMB를 비롯한 신규 사업자들은 8번 채널의 수신권역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한 주파수 배정을 요구했다. 주파수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칫 사업자간 협의체가 깨질 위기까지 몰렸지만, 방송국 허가 신청 전날 8번 채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

7월 중순 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국 허가가 나오면 YTN DMB는 지상파DMB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명실상



부한 지위를 갖게 되며 송신기 발주와 방송 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인력을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등 12월 본 방송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상파DMB 경영진 구성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YTN DMB 주주총회에서는 당초 3명이었던 이사수를 일반이사 5명, 사외이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늘려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다. 일반이사에는 표완수 YTN 대표이사 사장과 진상옥 YTN 기획조정실장, 유광희 TBN 교통방송본부장, 김홍권 경남 기업 상무이사, 한용규 지어소프트 대표이사 등이 선임됐으며, 사외이사에는 방송계의 추천을 받은 장동훈 전 영상홍보원장, 신문계의 추천을 받은 이창우 전 부산일보 전무이사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유종선 YTN 경영관리국장이 재선임됐다.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표완수 사장이 YTN DMB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사외이사 2명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임원들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정했다. 이는 사업 초기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6개 주주사들도 이 같은 경영방침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제 YTN DMB의 큰 밑그림은 그려졌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YTN DMB가 넘어야 할 과제

는 산적하다. 송신기 발주에서부터 사내 연주소와 제작 설비 공사 등 12월 본 방송을 고려할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빠듯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또 DMB 환경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확보와 Infortainment (Inform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를 지향하는 편성 전략 수립은 YTN DMB의 성공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광고제도 개선과 사업 초기 시청자 확보를 위한 지하철 등 음영지역의 중계망 구축과 단말기 유통망 확보 등은 위성 DMB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지상파 DMB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 DMB 6개

사업자는 지난달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사무국을 통해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위성 DMB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을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 주자인 지상파 DMB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느냐 여부는 향후 시장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상파 DMB가 성공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차기 시장에 표완수 사장 추천

YTN은 6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표완수 현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추천했다.

표사장의 연임은 오는 8월 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가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7인)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7일 표완수 현 사장을 단독 후보로 발표했다.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브로드캐스트 아시아 2005' 행사장에 설치된 DMB KOREA관 모습

7월호 목차

- 121 ▶ 케이블TV 10년 - YTN과 함께 한 케이블TV
- 131 ▶ YTN에 바란다⑤ -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해야
- 141 ▶ 7기 YTN 노조 출범 - 공정방송을 위해 매진하자
- 151 ▶ 취재기 - 발품 팔아 얻은 자료/정겨운 '평양'
- 161 ▶ 아이젠하워 펠로우 -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171 ▶ 통신원에게 듣는다⑤ - 6mm 카메라로도 충분
- 181 ▶ 음악동호회 Y - Music
- 191 ▶ 프로그램 탐방 - 경제와이드

YTN과 함께 한 케이블TV 10년



우여곡절 속 눈부신 성장

요즘 방송·통신계는 온통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양측은 방송·통신 융합에 자사의 사운을 걸은 듯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카로운 논리로 각자의 사업영역을 확장내지는 수성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995년에 출범한 케이블TV는 올해로 개국 10년을 맞이했다. 지상파 3사에 의한 방송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케이블TV는 IMF와 통합방송법 제·개정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유료방송의 대표매체이자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했다.

우선 1995년 말 전국적으로 20여만 가구에 불과하던 가입세대가 2004년 말 기준으로 1,280여만 가구로 60배라는 초고속 성장을 하며 보편적 방송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또한 YTN을 비롯한 PP도 1995년 3월 20개사로 출발한 것이 이제는 180개사에 육박하여 일부 질적인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케이블TV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MSO와 MPP를 중심으로 한 진화가 눈에 띈다. SO의 경우 개국 당시 가입신청시 설치율이 15~20%에 머물러 수신자 확보에 애로를 겪었으나, 이제는 MSO화를 통해 PP에 대한 협상우위는 물론 거대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등 유료방송의 작은 거인으로 성장했다.

전국 SO 94개사는 2003년에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orea Digital Cable Laboratories)을 설립함으로써, 케이블TV와 관련된 각종 기술개발과 표준업무, 매체정책까지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MSO인 CJ케이블넷은 올해 2월 'HELLO D' 라는 자체 브랜드로 디지털케이블TV를 출범시켜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에서도 유료방송을 리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P도 눈부신 성장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개국 원년 20여만 수신가구에 불과해 광고매체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던 PP가 2004년에는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방송 시청점유율에서 약 30%를 차지하는데 힘입어 광고수주도 방송업계 매출의 12~13%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는 30%라는 시청점유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난해 전체 PP의 광고수주액 증가율이 29%에 달하는 등 높은 시청률 등에 대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YTN과 온미디어, CJ미디어는 높은 시청률과 많은 수신가구, 브랜드 파워 등으로 케이블TV 광고시장의 고속성장을 이끌고 있다.

YTN뉴스는 케이블TV의 역사!

케이블TV 10년사를 말하면서 YTN을 제외할 수는 없다. YTN은 개국 직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사고발생 5분만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3분부터 특종보도 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하는 등 뉴스채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28일에는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오전 8시 20분부터 특종보도 함에 따라, 뉴스제공은 물론 사업 초기 케이블TV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후 10년 동안 YTN의 '특종 최초보도 퍼레이드'는 워낙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삼풍백화점 붕괴 때 매물땀던 유지환 씨 생존소식 첫 보도(1995년 7월 11일) ▲북한 잠수정 무장공비 침투사건 최초보도(1996년 9월 18일) ▲대한항공 괄 추락사고 최초보도(1997년 8월 6일) ▲특별기획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방송(1999년 8월 15일) ▲이라크 전쟁 최초보도(2003년 3월 20일) ▲SK 부당내부거래 특종보도(2003년 2월) ▲돌발영상 화제집중(2003년 12월)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YTN의 특종·최초보도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상역사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YTN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 2000년 8월 15~18일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참가한 북한 교향악단은 숙소인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 YTN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2003년 8월 조사전문기관인 TNS코리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사고' 분야에서 YTN은 기존 지상파 3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보도방송에서 YTN의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

인시켜 주기도 했다.

디지털시대, 위기와 기회 공존

방송·통신업계를 비롯해 많은 산업의 미래가 디지털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진리로까지 통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디지털을 외치고 방송·통신 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소속사의 미래비전 혹은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방송 산업의 기본적 속성인 불확실성(uncertainty)에 디지털이라는 변수(variable)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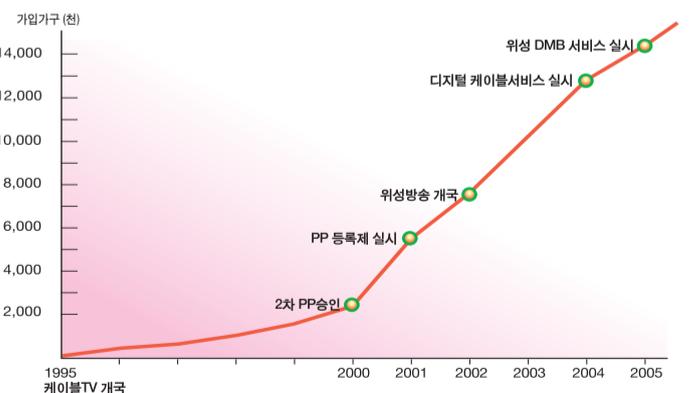
2002년 위성방송(SkyLife)이 디지털방송으로 개국하고 올해 들어 위성DMB(Take out TV)가 출범한데 이어 일부 SO도 디지털케이블TV를 상용화하면서 디지털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또한 이외 IPTV와 WiBro, 지상파DMB 등이 속속 출범을 예정하고 있어 그야말로 방송계는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에 통신 분야까지 들여다보면 범위가 더 넓어진다. 정통부의 'IT839전략'에 의하면 '홈네트워크서비스'와 '지능형서비스로봇'도 조만간 상용화될 전망이다. 홈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정보가전제어와 양방향DTV, VOD, 헬스케어, 원격교육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YTN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능형서비스로봇이 아침에 소비자를 깨운 뒤 일기예보와 뉴스브리핑, 출근길 정보제공 등을 할 경우 YTN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까? 만약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생활정보인가, 뉴스보도인가? 그리고 소비자(국민)들은 이 로봇이 전하는 뉴스와 일기예보, 교통정보 등을 어떻게 생각할까?

'케이블 10년, 디지털 원년'을 맞은 YTN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백상기 (매체관리팀)

케이블TV 10년 방송시장의 변화



게시판

포상

▶ 특종상 금상

황순욱·박소정(사회1부) 잠실 주공단지 재건축 비리 의혹 보도

▶ 특종상 은상

김기봉(정치부), 심정숙(사회1부), 광영주(영상취재팀) 28사단 총기 난사 사고 또 있었다 / 법조팀 김승규 법무장관-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 회동

▶ 특종상 동상

김정현(사회1부), 김태윤(영상취재팀) 불법 찬조금 모

금 현장 잡혔다 / 이대건(사회1부) 한국 노총, 업체에서 발전기금 25억 수수 확인 / 이대건·심정숙(사회1부), 원중호(영상취재팀) 한강시신을 둘러싼 검은거래의 실체 고발 / 윤현숙·강현석(부산지국) 부산 요양원 노인 학대 파문 최초 보도

▶ 우수 프로그램상

김동민(기동취재팀) 현장르포 '임진각' 2부작 / 독도 취재팀 기획특집 '독도' 3부작 / 이기정(제작팀)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대담

▶ 공로상

이재철·한정호(제작팀) '세계 빛 축제' 유치 및 생방송 / 이재홍(사회1부) 프로축구화면 입수 방송내용 충실화

/ 박봉수·김봉덕(타워운영부) 타워 2층 옥상 냉각탑 철거 화재 초기 진압

▶ 창의상

김명숙(편집3팀) 새로운 뉴스포맷 개발(뉴스79 중 들어봅시다) / 유희성(기술관리부) 회사경비 절감(주파수 양보에 따른 보상금 합의) 7. 1

▶ 입사

이남규(타워사업부) 6. 27

▶ 퇴사

김현우(기획팀) 5. 23

▶ 전보

신광호 재무회계팀장 (주)YTN미디어 파견 5. 30 /

송진욱 차장대우 제작기술부, 김동후 차장대우·정경남 (주)YTNDBM 파견 6. 1

▶ 부음

김지영(제작기술부) 시무상 5. 26 / 이승환(영상취재팀) 부친상 5.27 / 정진웅 차장(중계부) 부친상 6. 8 / 서영석 차장대우(그래픽팀) 병모상 6. 10 / 박정환 방송위원(기술부) 모친상 6. 16 / 채장수 대구지국장 모친상 6. 20

▶ 결혼

지민근(마케팅2부) 5. 21 / 이상무(디지털기획부) 5. 29 / 윤원식(영상편집팀) 6. 18 / 강태식(영상편집팀) 6. 19 / 김지연(해외사업팀) 6. 19

개국 10년 기획시리즈 - YTN에 바란다 ⑤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해야



이창근 한국언론학회장 / 광운대 교수

“YTN은 내 친구”

YTN 개국 10년을 축하한다.

돌이켜보면 지상파 뉴스만을 볼 수 있었던 90년대에 TV 뉴스를 24시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당시로서는 커다란 변화였다. 지상파 방송의 정규 뉴스 방송을 놓쳤을 때 언제나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필자와 같이 뉴스를 즐겨 보는 사람에게는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요즘도 늦게 귀가하는 경우 소파

에 앉자마자 YTN을 본다.

YTN은 개국하면서 한국의 CNN이 되겠다고 모토를 내세웠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다. 필자가 1982년 미국 대학원에 간 그 해 가을 KAL 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하여 격추되었는데 그 때 오전 강의 때 교수님이 이 소식을 알려주어 크게 놀란 적이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CNN을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채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 것은 그 때부터 이었다.

“사회 발전에 기여”

그러나 CNN이 1980년 방송을 시작한 지 15년 뒤에나 YTN이 개국을 하였으니 꽤나 늦게 시작한 셈이다. 필자는 YTN이 뉴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24시간 뉴스를 제공해준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YTN은 상업방송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익을 내기 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종사자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YTN이라는 언론기관이 수많은 정보를 여과, 정제하여 우리 사회에 유통시킨 것은 정보 상품의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TV 방송사가 정파성을 띠고 저널리즘의 정도를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사실 보도에 충실하려는 YTN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YTN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걷는 방송사로 남기를 기대한다.

“뉴 미디어 시대 혁신 노력 필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YTN의 미래는 밝지 만은 않다. 최근 DMB 사업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았지만 매체와 채널의 폭증으로 정보 전달 수단이 날로 증가하고 인터넷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정보접근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은 YTN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YTN은 지상파 위주 시장에서 뉴스전문 채널로서의 위치를 십분 향유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YTN이 계속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DMB와 같은 새로운 출구를 필요로 하겠지만 뉴스 채널로서 독보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 하는 길밖에 없다. 거대 방송사의 보도가 저널리즘의 정도를 벗어나고 있을 때,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사실을 확인, 검증해 보도하며, 심층 분석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주는 능력이야말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고, YTN이 미디어 빅뱅 시대에 향후 10년을 보장받는 길일 것이다.

YTN단신

YTN DMB, 표완수 초대 대표이사 선임



YTN DMB는 6월 9일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표완수 YTN 대표이사 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신임 이사에 진상욱 YTN 기획조정실장과 유광희 TBN 교통방송본부장, 김홍권 경남기업 상무, 한용규 지어소프트 대표이사가 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는 방송계의 추천을 받은 장동훈 전 영상홍보원장과 신문계의 추천을 받은 이창우 전 부산일보 전무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3월 28일 DMB사업 허가 추천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YTN DMB는 최근 300억원의 증자를 마쳤으며 방송위원회 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에 무선국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YTN DMB는 뉴미디어 개척자로서 오는 12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TV를 볼 수 있는 이른바 '내 손안의 TV 시대'를 여는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앵커·기상팀 교육



'KBS 가요무대' 등으로 친숙한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난 5월 19일 앵커·기상팀의 초청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평소 YTN을 시청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40여 년 동안의 방송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경험 등을 소개하며 24시간 뉴스에 파묻혀 사는(?) YTN의 앵커·기상팀에 대한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방송인은 무엇보다 신뢰감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어 한국의 뉴스를 이끌어 가는 앵커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상준 동아방송대 교수도 6월 3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본인의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올바른 발음과 외래어 사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대건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이대건 기자(사회1부)가 '한국노총, 발전기금 25억 수수 확인'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제177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포토뉴스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대담



제7기 YTN 노조 출범식 (5월 30일)



7기 YTN 노조 출범

YTN

공정방송을 위해 매진하자!



“공정방송, 지켜 왔나?”

우리가 지상파 DMB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기쁨에 흠뻑 젖어 있는 사이에 외부에서는 새로운 뉴스채널을 얻어 내려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됐다. 지

난 5월 말 출범한 7기 노조로서는 뉴스 시장의 난개발 사태를 불러올 것이 뻔한 뉴스채널 추가 승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관련자들을 만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약방에 감초처럼 나온 얘기는 공정방송에 관한 것이었다.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로서 유일하게 종합보도를 하는 YTN이 과연 지난 10년 동안 여론을 공정하게 보도했는지, 광고주나 주주

로부터 간섭이나 압력을 받고 왜곡된 방송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이 때 마다 단호하게 답변했다. “YTN 직원들은 공정방송을 일구는데 앞장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공적채널인 YTN은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해 사장 선임 과정에도 사원대표가 추천위원으로 적극 참여합니다.”...

만약 YTN이 거액의 광고에 탐을 내고 대기업에 유리한 보도를 서슴없이 해 왔다면 방송 시장에서는 지금쯤 제 2의 종합뉴스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조합원들이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지 않았다면 YTN은 수많은 프로그램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로 전략해 방송법에 명시된 보도채널의 ‘의무재송신’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을 것이다. YTN은 의도적으로 편파방송을 내보낸 적이 없다는 소신 있는 답변이 이어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무척 다행이다.

편향된 여론 형성 가능성?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최근 방송위원회가 매체의 집중도를 거론하며 특정 자본에 편향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보도채널 추가 승인을 슬쩍 공론에 부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시청자는 케이블 TV를 통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를 고스란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YTN에 뉴스가 집중된다는 분석은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YTN이 고귀하게 지켜온 공정방송 노력은 일부러 외면한 채 특정 자본에 치우친 여론이 가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은 지나친 노파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정방송의 깃발을 높이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공정방송의 대원칙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특히 상당수의 언론사가 끝 모를 경기 침체와 경쟁 가열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음에 따라 공익을 우선해야 할 뉴스가 자본의 힘에 짓밟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시라도 불편부당의 원칙을 잃으면 YTN에는 즉각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것이다. 케이블 TV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 (?)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광고주, 주주의 손을 들어 준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조는 YTN이 사회적 공器(公器)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빈틈없이 감시해 나갈 것이다. 공정방송의 횃불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이 광업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위원장

한국방송장비전시회(KOBA) 2005 참관기

YTN

IT 기술과 방송장비의 만남



KOBA2005가 “Digital Innovation”이란 주제로 2005년 5월 17일 ~ 20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방송시대와 함께 지난해 보다 성숙한 디지털 방송장비와 IT 및 융합장비들이 선보였으며 각종 세미나가 개최됐다.

예년과 비교하여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출판업체가 많이 줄었지만, “Digital Innovation”이란 주제처럼, IT 기술을 방송장비에 도입함으로써 Compact 해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방송장비들이 선보였다.

우선 6mm 캠코더에서 HD급의 촬영이 가능해졌고, 녹화방식도 기존의 Tape base 일변도에서 벗어나, IT

기술의 대표적인 산물인 메모리카드에 녹화하고 컴퓨터에서 직접 불러서 편집이 가능하거나, Blue ray 기술을 이용하여 고집적 DVD에 수시간 녹화 가능한 카메라가 도전적으로 선보였다.

그리고 비선형편집장비(Non linear Editor)가 기존의 VCR 1:1 편집기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VCR은 재생용이나 디지털 장비에 Ingest용으로 변화되어, 방송시스템에서 중요한 안방자리를 비워주고 있었다. 비선형편집기는 대표적인 디지털 편집 장비로써 기존에는 여러 명이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 구현하던 편집 및 효과처리를 하나의 장비에서 가능하게 해주며, 서로 간에 Network으로 연결되어, Tape Base로 운용되던 제작시스템을, Tape-less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해준다.(물론, 경제적이고 업무구조에 맞는 시스템 통합이 면밀히 연구되어야 함). 디지털방송장비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 번 반복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아날로그 Tape에서 보이던 화질 열화현상이 없어 향후 자료 보관과 활용이 쉽다.

이번 전시회에서 지상파3사는 독립 부스를 마련하여 HDTV, DMB, Interactive 콘텐츠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로 HDTV와 DMB를 홍보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방송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전시회장 구석구석 자그마한 부스를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Network으로 고화질 압축 전송이 가능한 장비 및 솔루션 그리고 휴대용 Storage 등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IT 장비들을 방송에 적합하도록 잘 활용한다면 뉴스 취재 및 제작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 Conference 홀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HD 방송기술 및 DMB와 관련된 “디지털 방송 특강” 및 “TV in your Hands” 등의 주제로 기술세미나가 열려서 디지털 방송기술을 공유하는 장으로써 한 몫을 했다.

IT 및 디지털 통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방송에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지 오래 되었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또한, 최신기술들이 매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그만큼 몸이 무거워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KOBA 전시회에서 본 기술적인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IT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방송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못할 것이라 는 것을 느꼈다.

박형일 (디지털기획부)

독도 취재기

발품 팔아 얻은 소중한 자료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졌다. 변화무쌍한 섬 날씨답게 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섬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의 운항도 당연히 중단됐다. 취재진은 꼼짝없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 오키도(주1)에 갇히고 말았다.

“언제쯤 저 파도가 가라앉을까?”

그렇지 않아도 취재 일정이 빠듯해서 마음이 급하던 차에 날씨마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지난 일주일간 섬의 비바람과 고독에 갇힌 채 선상에서 속을 몇 번이나 게워낸 경험이 있는 취재진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다.

취재진이 오키섬을 방문한 것은 지금까지 한일 양국 학계에 알려지지 않는 안용복의 진술서를 찾아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에 일대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문서였다. 섬에 들어

오기 전날 고문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국내 모 교수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더니

“국내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 만큼 무조건 찾아서 취재를 해야 한다... 고문서를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본과 똑같이 복사를 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했다. 1696년 동래 어민 안용복이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서 오키섬에 도착했을 당시 일본 에도막부의 관리가 그의 진술을 기록한 고문서가 그것이었다.

일본 시마네현 민단 구영해 사무국장을 통해 고문서 소장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손에 넣은 다음 취재진은 바로 섬으로 들어갔다. 물론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무라카미 씨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부딪쳐 보자는 심산이었다. 무라카미 씨의 집은 오키섬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부속 도서였다. 우리는 오키섬의 한 모퉁이에서 파도치는 바다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호수가 되어 있었다.

무라카미 씨는 우리 취재진이 도착하자 일본식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일단 손님이 찾아왔으니 차를 내어오고 정중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끌어갔다. 20여분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라카미 씨의 창고 문은 닫혀 있었다. 우리가 취재 목적을 분명히 밝히자 자신이 그 문서를 보여주면 일본 내 보수 진영과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

다. 하지만 한 시간 여동안의 설득 끝에 무라카미 씨는 “역사적인 사실인 만큼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창고에서 문서를 꺼내어 왔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쾌재를 불렀다. 다짜고짜 찾아온 취재진에게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이었다. 한 시간 여 동안 문서 전체를 꼼꼼히 모두 촬영하고 복사본까지 얻을 수 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우리 섬을 나와서 먼저 회사에 “특종을 하나 잡았다”고 전화 보고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전날 이미 국내 신문에 내용이 소개됐다는 것!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시마네현의 민단 사무국장이 도쿄 특파원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 내용을 신문들이 그대로 받아 쓴 것 이었다. 결국 오기 본섬에 하루 묶이면서 시간을 소모한 관계로 간발의 차이로 특종은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신문기사는 듣고만 쓴 기사지만 우리는 발품을 팔아 쓴 기사라는 점 그리고 방송으로는 첫 기사라는 자부심이 있다.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문서의 사본 자료와 영상자료를 확보해 한일간 독도 논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위안이 되었다. 독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펴는 일본의 보수진영이 우리가 입수한 안용복 진술서 사본으로 인해 이젠 함부로 “독도는 울릉도가 관할하는 섬이 아니다”는 헛소리를 못하게 됐으니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정 석 영 차장대우(사회1부)

(주1)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8km, 독도와 오키섬 간 거리는 158km로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지만 오키섬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평양 취재기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평양'



“잠시 뒤 평양 순안비행장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여 정도, 북한 고려항공 여 승무원의 기내방송이 있을 뒤 10여 분이 채 흘렀을까? 순안공항에서는 기자가 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내는 엔진음 이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호젓하게 느껴졌다. 후텁지근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오늘 평양의 기온이 31도 입네다” 우리를 3박4일 동안 안내할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그는 기자 일행(원영빈 차장, 김주환)이 YTN 소속이라는 것을 목에 맨 인식표를 보고 알았는지 “조승호 기자 선생! 잘 있습니까?”라며 말문을 뽀뽀, 조 선배가 지난 2003년 평양을 취재할 당시 자신이 안내를 맡았다며 친근감을 나타낸다. 서울을 이미 5차례 다녀왔다는 그와의 짧았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대동강 한 가운데 ‘양각도’라는 섬에 자리 잡은 숙소

인 양각도 호텔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남루하다는 느낌 뿐, 기억 저 편에서 꺼내 든 편린에서 엿본 것 마냥 ‘평양’이라는 도시가 나에게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선친의 고향이기 때문일까?

첫날 저녁, 남측에서 온 우리 일행과 북측 민화협 관계자 몇몇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다시 그와 만났다. “남측 기자선생들 하는 방식으로 폭탄 한 잔 돌립세다” 좌중에 웃음에 터지고, 드디어 폭탄주가 돌기 시작했다. 취기가 어느 정도 올랐을까?

“김기자 선생은 자녀가 몇 명 입네까?” 그의 갑작스런 질문에 “아들만 둘...”이라는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다시 말꼬리를 잘랐다. “국제 고아가 될 겁네다...” 이게 무슨 뜻이지?

“사내놈들은 키워봤자, 부모 공양은 안한다. 딸이 최고다”라며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아들들의 ‘부모 안모시기’ 풍조가 북한 사회에도 이미 만연해 있어 아들보다는 딸이 노후에는 훨씬 낫다는 설명을 그렇게 나타냈다.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북한에서 보통학교(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장래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바로 만경대 소년학생공전의 교원(=교수)이 되는 거란다. 예체능을 주로 가르치는 이곳에서 교원이라는 지위는 우리에게 는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 우리가 TV 등을 통해 자주 봤던 북한의 나이 어린 학생들의 공연을 할 때 북한 엄마들의 치맛바람도 무척 세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합창을 할 경우 자신의 딸을 무대 중앙에

세우기 위해 학교 측에 ‘촌지’ 공세도 한다고 한다. 우리네 일부 극성 엄마들처럼 말이다.

이런 변화의 이면엔 역시 자본주의의 상징인 ‘돈’이 파리를 틀고 있었다. 소비 중시풍조가 늘었고, 개인택시도 다닌다는 말도 들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수의 이야기다. 정부 관리의 한달 급여가 35달러에 불과한데다 일반 노동자들은 그나마 10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 역시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며 속내를 털어놓는다.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생겨난 부작용 때문이란다.

3일째, 평양에서 190 km 떨어진 묘향산을 관광을 마치고 평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뽀뽀한 일정 때문인지 남측, 북측인사 가릴 것 없이 일행 대부분은 피곤에 지쳐 곤히 잠든 상태였다.

차창 밖으로 비를 맞은 채 모를 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농촌 지원 총동원’ 기간이기 때문에 인민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그가 설명했다.

그가 민감한 문제인 ‘핵’에 관해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기자 선생은 공화국의 핵 보유 선언(지난 2월 10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와 나는 아주 작은 소리로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일행을 태운 현대자동차 미니버스는 어느새 평양 도심에 들어서고 있었고, 비도 그쳤다. 때 맞춰 우리의 대화도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선제공격 독트린에 대해서는 ‘우려’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주 환(사회1부)

디지털 경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MSNBC 토론프로 'HARD BALL' 진행자 크리스 매슈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정확하게 2달간 미국의 아이젠하워 재단에서 주관하는 아이젠하워 펠로우십의 Multi Nation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미국의 주요방송과 저널리즘 스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이젠하워 재단에서 주관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 중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Multi Nation 프로그램은 전 세계 25개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각 1명씩을 선발한 뒤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미국의 관심분야를 둘러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95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선발 대상국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한국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올해까지 모두 30여명이 연수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신문 기자출신이 선발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방송기자로서는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아이젠하워 재단 측에서는 사전에 연수 참가자로부터 희망 방문기관을 접수 받은 뒤 해당 기관들과 접촉을 해서 약속일정을 잡아준다.

나의 주 관심사는 24시간 뉴스 채널의 원조격인 미국 방송들의 앞선 TV 뉴스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중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주관 방송장비 전시회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첨단 디지털 방송 장비들과 새로운 방송 경향을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부수적인 성과였다. 연수 기간 중에 미국의 20여개 도시를 방문해 모두 15개 TV 방송사를 들러 뉴스 진행현장과 취재와 제작 시스템 그리고 기술 장비 등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을 간추려 정리 해본다.

1. 실용성 위주의 뉴스 콘텐츠 : 날씨와 교통

내가 방문한 미국의 방송사들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중소 방송국부터 뉴욕과 LA 등 미국 최대도시의 방송국까지 그 규모가 다양했다. 이들 방송국들의 뉴스 콘텐츠 가운데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날씨와 교통이었다. 뉴스 시간마다 날씨 뉴스는 중간 중간 여러 차례 삽입됐으며 어느 로컬 24시간 TV 뉴스 채널에서는 10분마다 날씨뉴스를 라이브로 방송하기도 했다. 날씨 뉴스의 중요성이 이처럼 높아진 데 대해 방송국 관계자들은 최근 기상 예측 장비의 발전으로 정밀한 날씨 예보가 가능해지고 또 기상 이변에 따른 날씨의 변동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날씨 뉴스는 지금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송국들마다 날씨 뉴스를 중요시하다보니 인력도 대폭 보강하고 있었다. 아무리 적은 방송국이라도 날씨 전문가(meteorologist)가 3-4명씩

있었고 규모가 큰 곳은 8명까지 있는 곳을 봤다. 이들은 다양한 기상 정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기상 예보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첨단 디지털 3차원 그래픽기로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날씨뉴스의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날씨 다음으로 눈에 띄는 콘텐츠는 교통이었다. 방송국들마다 1-2명씩 교통 전문기자를 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주정부나 로컬 정부차원에서 설치한 각 도로의 CCTV 화면을 이용해 교통 흐름을 방송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GPS 시스템을 이용한 독자적인 그래픽 시스템을 개발해 실시간 현장 도로 지형을 3차원으로 나타내면서 교통흐름을 방송하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2. 일 중심의 취재 시스템

미국 TV 방송사들의 뉴스 취재 시스템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른바 PD 시스템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PD와 기자의 영역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그들의 역할 또한 다르다. 뉴스 제작의 총 지휘자는 PD이고 기자나 작가 그리고 카메라 기자들은 PD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일반적인 기사작성은 담당 데스크(Assignment Desk)들의 지시 아래 작가(writer)들이 전담한다. 작가들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wire)와 보도자료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의 뉴스 모니터 등을 참고해 새 기사들을 작성한다. 기자들은 현장 생중계와 현장 리포트 작성에 전념한다. 몇몇 방송국의 배려로 보도 국장과 PD들이 참석하는 전체 취재회의에 참석해서 그들의 취재회의와 현장 취재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지만 철저히 사전 중심으로 취재 일정이 짜여지면서 카메라와 중계차 등 모든 장비가 집중 투입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3. 생산성 중심의 디지털 첨단 장비들

내가 다녀 본 미국의 방송사들의 편집실에서는 이미 조그서들을 돌리는 아날로그 편집장비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 물론 긴급하게 들어오는 뉴스 테이프의 편집을 위해 아날로그 편집장비가 몇 대 비치돼 있기는 했지만 주류는 디지털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었다. 자리마다 비치된 비선형 편집기를 이용해 모든 PD와 기자들이 그림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꺼내와 직접 편집해서 다시 뉴스를 송출해야하는 부조정실로 보내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방송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숙달되면서 이전 아날로그 편집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미국방송국의 스튜디오에서 앵커나 출연자를 비추는 카메라들은 부조정실에서 원격 조정되는 자동카메라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개발된 디지털

조종 장비는 모든 가능한 카메라 샷(shot)을 사전에 프리세팅(presetting)해 놓은 뒤 필요한 장면에서 간단하게 터치스크린(touch screen)방식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종하는 디지털 방식이 개발돼 기능성과 간편성 그리고 정확성을 높인 게 특징이었다. 워싱턴에 지국에서 진행되는 MSNBC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 'Hard Ball'의 경우는 스튜디오 카메라 조종을 4시간 거리에 있는 뉴욕 본사에서 할 정도였다.

첨단 디지털 방송장비의 개발은 모든 방송 일을 바로 자기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비선형 편집기가 그렇듯이 한 방송국에서는 기자들의 리포트 제작에 필요한 오디오 녹음까지 기자들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각 자리별로 마이크와 디지털 녹음 장비를 설치 해 놓은 곳도 있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 음향장비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굳이 번거롭게 방음장치가 돼 있는 녹음실로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4. 현장 생방송 능력의 배양

미국 방송사들은 우리처럼 공개 채용시험이 아니라 개별면접으로 기자들을 뽑는다. 이들이 면접 단계에서 평가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현장 라이브 방송 능력이다. 미국 방송들을 보면 현장 기자가 원고 없이 10분 20분을 간단하게 방송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실제로 미국 방송현장을 가 보면 기자들이 간단한 메모하나만 보고 끊임없이 얘기한다. 이번에는 정말 궁금해서 여러 명의 현장기자에게 물어봤다. 훈련이란다. 대학 방송기자 때부터 메모만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송 능력을 키운단다. 현장 중계 때에도 데스크로부터의 사전 원고 승인은 있을 수 없다. 데스크로부터는 중요한 지침만 받고 모든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기자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방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방송하기 전에 철저히 관련 자료를 찾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미리 듣는 등 공부를 한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는 현장에서 앵커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에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한국식 현장 생중계에 익숙한 한국 기자에게는 여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미국의 최근 TV 방송트렌드를 살펴봤지만 미국과 한국의 방송 취재 시스템과 이를 위한 인적 인프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양쪽을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러나 집중과 선택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미국 방송사들의 업무시스템과 세계 최고의 방송기술과 장비를 자랑하는 그들의 테크니컬 시스템가운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몇 가지 공통적이면서도 함축적인 코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방송사들마다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출범한지 불과 3년도 안 됐지만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기존의 쟁쟁한 경쟁사를 따라 잡은 한 로컬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의 부사장은 그 비결을 간단하게 말했다.

“경쟁자들이 걷고 있을 때 우리는 뛰고 그들이 뛸 때 우리는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뛰고 날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류 희 림 편성운영팀장

세계속의 YTN - 통신원에게 듣는다 ⑤

“6mm 카메라로도 충분해요”



“카메라가 너무 작고 귀엽다!!”
 “이렇게 작은 캠 코더로 뉴스를 레코딩 한다구?”
 영상 취재나 현지인들

인터뷰 시 일반 방송용 카메라에 비하면 턱없이 작고 사뭇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가정용 6mm 캠코더에 대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취재원들 대다수의 질문이다. 호기심 많은 일부 취재원들은 “이렇게 찍은 영상이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한국으로 가서 뉴스로 방송될 수 있냐?”며 제작과정 전반에 걸친 관심과 의욕(?)을 적절히 섞어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불과 4달여 전, 아주 우연한 계기로 YTN 인터내셔널 해외방송팀 팀에 시드니 리포터로 합류(?)하게 될 당시 필자 역시 “가정용 6mm 캠코더로 찍어서 과연 뉴스를 만들 수 있을까?”하며 고개를 가우뚱 했으니, 취재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어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스발굴에서 기사 작성, 영상취재와 리포팅

그리고 가편집을 거쳐 YTN 서버에 최종 작업물을 올려 놓기까지, 재외동포 뉴스를 위해 해외방송팀이 요구한 ‘취재기자-촬영기자-영상편집’에 이르는 ‘1인 3역’으로 지난 몇 개월 간 구슬땀을 흘리며 활동하면서 6mm 캠코더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고 기능도 아주 단순한 가정용 6mm 캠코더에 불과하지만, 이작은 도구가 인구 6만 시드니 동포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국의 시청자들과 다른 해외 동포사회에 빠르게 전달해주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재외동포뉴스 시간을 통해 필자가 보도했던 호주 정부의 기술이민 전면 확대 소식에서부터 불법 체류자 동포 자녀가 초등학교 교정에서 이민경찰에 의한 난민수용소로 끌려갔던 사건, 그리고 한국산 라면이 시드니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유통기한이 2배나 길게 잡혀 판매되고 있는 문제 등도 다 6mm 캠코더로 영상 취재해 방송했던 것들이다.

물론 일반 방송용 카메라 보다는 화질도 떨어지고 또 취재원들을 만날 시 기선제압(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차원에서는 약간 밀리는 경향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형식보단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닌가.

6mm 가정용 캠코더 외에도 호주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호주에서는 가정이나 사무실서 대부분 아직도 ADSL을 사용하고 있다)으로 친척이 운영하는 PC방서 ‘화상전화’ 연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본업과 해외방송팀 리포터로서 ‘양다리’의 존재적 한계 등 ‘더 좋은 뉴스 만들기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도 사실 많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6mm 캠코더도 그 존재 자체가, PC 방에서라도 화상전화를 통해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할 수 있는 점이 그리고 동포신문사 기자로서 갖고 있는 뉴스 감각과 취재원들을 활용해 재외동포 뉴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고마운 일이다.

도구나 방법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도 재외동포 뉴스를 통해 호주 동포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점 자체가 고무적이고, 특히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해외방송 팀원들의 모습은 새로운 열정을 꿈꾸기에 충분하다.

이제 막 출범 1주년을 맞이한 해외방송팀이 10주년, 3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도 필자의 작은 6mm 캠코더를 통해 더 많은 시드니 동포들의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권기정 시드니 통신원

동호회 Y-Music

YTN 식구들의 음악 휴식처



뚜두뚜두 뚜두뚜두!! 좌우지~♪장지지지! 좌우지~♪장지지지~♪

YTN이 남대문 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가장 들썩이던 날로 기억한다.

노조집행부 이취임식이라는 의미 있는 5월 30일.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생음악이 사옥을 뒤흔들었다. YTN 음악 동호회 Y-Music의 사실상 첫 공식무대 데뷔이기도 했다.

그날의 이취임식은 음악과 함께 했기에 더 흥겨웠고 음악과 함께 했기에 더 의미가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 Y-Music의 탄생은 정말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됐다. 3부조에서 국제부의 세계세계인을 제작할 당시 배경음악에 대해 담당 PD(이종국 차장)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미 3년여 동안 베이스기타 하나 들고 밤(?)무대를 돌며 실전 경력을 쌓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나는

한번 말문이 터지자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토해냈고 역시 음악에 대해 서라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이차장도 죽이 맞아 한참을 떠들었다. 그렇게 만날 때 마다 음악의 세계를 논 한지 어언 6개월. 우리 둘의 결론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인데 다시 한 번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같은 모종의 음모(?)는 당시로서는 실행 여부가 불가능한, 하지만 이 나이에 순수를 생각하게 하는 가슴 설레는 일임에 분명했다. 일단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급선무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YTN 방송 음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장석문 감독. 장 감독 역시 음악에 대해서는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우리 회사, 아니 업계 최고의 뮤지션이다. 친군만마를 얻은 우리는 이후 여러 동료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들이 숨어 있었구나 하며 놀랄 때가 많았다.

특히 록에서 팝, 포크, 클래식 등 장르를 물론 다루는 악기도 피아노와 기타, 베이스, 드럼 등 기본 편성 외에도 색소폰과 트럼펫, 플루트 등 관악기와 바이올린 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연주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당장 데뷔해도 될 만큼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동료들도 (물론 ‘전국 노래자랑 남대문편’이 열린다면 데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속속 존재를 드러냈다.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그동안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두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사르고 싶다는 것이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곧 동호회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했고 그 수가 지금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번 노조집행부 이취임식에서의 첫 공식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관심 덕분이었다.

노조행사에 Y-Music의 자리를 마련해준 김상우 전 위원장과 이광엽 신임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게 먼저 이 글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첫 무대를 앞두고 밤늦게 연습을 하던 회원들을 위해 거금을 쾌척해주신 박찬중 기술국장을 비롯한 동호회 선배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컸다. 무엇보다도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Y-Music 멤버들과 함께 음악을 즐겨준 우리 YTN 전 식구들의 열정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확신한다.

이제 Y-Music은 거둬 나려고 하고 있다.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YTN 전 식구들의 음악 휴식처가 되고자 한다. 연주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간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음악과 함께 쌓인 피로를 풀고 선후배, 동료들과 순수한 음악의 세계를 논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Y-Music이 가고자 하는 곳이고, 지금처럼 YTN 식구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는 한 그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Y-Music에 보내준 YTN 식구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근데요.... 이렇게 하려면 음악실이 필요하거든요? 옥상에 천막을 쳐도 좋으니 어디 악기 갖다 놓을 곳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총무부장님~임!”

정창원 Y-Music 동호회 회장

“생활이 곧 경제”



경제? 경제 뉴스? 경제는, 또 경제 뉴스는 어렵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게 출발점이다. “생활이 곧 경제”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 뭘 잘 모르다 보니 이렇게 감히 당당히 외치고 시작한다.

2005년 봄 개편과 함께 출발한 <경제와이드>. 그 전에 경제 특화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에 오히려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게 아닐까?

매주 월~금 오후 5시부터 50분 가까이 진행되는 <경제와이드>는 하루의 경제 관련 뉴스를 짜임새 있게 재구성해 전하는 게 가장 큰 기본 틀. 여기에서, 그날의 핫이슈나 일상생활에 밀착된 소식은 좀 더 쉽게 풀어 궁금증을 함께 해소해 보자는 거다.

당일 경제지표 정리

먼저, 당일 증시와 환율, 금리 상황은 고정 전문가를 연결해, 단순한 지수 정리 외에 등락 요인과 전망까지 곁들여 더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 뉴스는 기자 리포트나 전화, 단신의 형식으로 연결성 있게 전한다. 필요할 경우, 실제로 뉴스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현장성 있게 전하기 위해 뉴스 메이커 당사자의 브리핑이나 인터뷰를 가공 없이 내보내는 녹취 구성도 활용된다.

주요 이슈 자세히 전달

그러나 여기서 잠깐!... “아,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게 경제 뉴스 시청자나 공급자 공통의 바람 아닐까?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좀 살고 싶은데, 요긴한 정보 어디 없나요?”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은 <오늘의 이슈>라는 별도 코너에서, 해당 전문가나 관계자의 출연 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히 풀어본다.

요일별 다양한 코너 마련

또, 요일별 섹션 뉴스 <웰빙&재테크>. 증시 분석·전망과 부동산 시장 소식, 건강 정보, 재테크 소식, 이렇게 월~목까지 해당 전문가 출연을 통해 갈등을 풀어본

다. 그 밖에 업계 주요 소식과 함께, 뉴스 진행 도중 들어온 새 소식을 앵커가 직접 인터넷 매체나 YTN 보도 시스템을 연결해 전해 주는 <이 시각 경제 속보>, 다음 날 발표되거나 이뤄질 주요 정책이나 경제계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살짝 보여주는 <미리 보는 경제 뉴스>, 그리고 <취업 뉴스> 등. 이런 코너들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맛보는 즐거움과 궁금증 풀기를 입체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다.

이거 한번 잘 해 보자고 김영수 앵커와 김종욱, 정유신 PD, 전해전 AD가 머리를 맞대고 담빈다. 다들 이미 와이드형 낮 특화 뉴스 진행을 마치고 난 터라, 경제와이드 준비를 시작하다 보면 웬지 머릿속도 손도 바빠지기 마련. 그 와중에도 늦게 섭취한 점심 메뉴, 그 존재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해 잠시 스킨스 혼수상태에 빠져든다. “더 산뜻한 아이템 개발하느라 잠시 눈 감고 생각한 거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왜 아무도 안 믿는 거지...? 때로는, 예정된 아이템이 바뀌거나 출연 섭외가 여의치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순간순간 서로의 생각을 맞춰 보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애를 쓴다.

또, 경제 아이템이 집중되는 뉴스를 위해, 안 그래도 바쁜 영상취재부 경제 편집팀은 더욱 바빠지고, 경제

뉴스를 함께 최종 생산해내는 부조정실에서 당일 진행을 맡은 모든 분들은 뉴스 시작 직전부터 진행 내내 긴장감이 팽팽해진다. 아무튼 욕심을 내다보니, 당일 주요 아이템으로 잡힌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 해당 부서들을 괴롭히기(?) 마련.(아마도, 경제부를 가장 괴롭히고 있다죠?) 24시간 뉴스를 위해 제품을 계속 생산해 내야 하는 분주한 와중에서도 각 취재부서 선배들이 와이드에 적극 참여해 주려 노력하니 감사할 따름.

“좋은 뉴스 위해 매일 고민”

하지만, 뉴스를 마치고 나면 늘 뭔가 부족하다는 감증이 남는다. 뭐 좀 제대로 해 보려면, 섭외는 적어도 오전에 마친 뒤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관련 자료도 뒤져가며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을 비롯한 여건의 부족이 아쉬움이기도 하다. 동시에 무엇보다, 과연 오늘 하루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욕구와 알뜰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는 명제에 실제로 얼마나 충실했을까... 혹여, 시각에 맞춰 모아진 소식들을 적당히 나열한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 또, 여건이 된다면 자체 기획 등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활어처럼 좀 더 생생한 소식을 통해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동시에, “담당 PD 너 경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채찍질도 하게 되고...

이제까지 YTN 경제 뉴스는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등 부침이 있었다. 때문에 지속 가능한 존재 필요성 그것을 어떻게 재발견하고 견인해 나갈지도 고민거리다.

되돌아와...경제는 생활인데, 그 생활은 자꾸 발전하고 변해 간다. 속도는 더 빨라진다. 뉴스 제작자들이 이런 흐름에 뒤처져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자꾸 겁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뉴스 더 잘 해야겠다고 다시 겁 없이 담빈다. 그리고 어느 선배의 말처럼 본질에 충실해야지.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속에서 더 입체적이고 피부에 닿는 딱딱딱한 뉴스 만들면서, 뉴스 그 자체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경제와이드를 꿈꾼다. 아, 언뜻 멋진 표현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지 아직 어렵기만 하다. 경제와이드 담당자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면, 이 때문에 고민 중이라 여겨 주시길.(ㅋㅋㅋ...)

김종욱(편집3팀)

